

번호 13-3

제 목	국문	우리 나라 국민의 보완요법 이용률, 이용양상과 비용지출			
	영문	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Use in Korea : Prevalence, Pattern of Use, and Out-of-pocket Expenditures			
저 자 및 소 속	국문	이상일, 강영호, 이무송, 구희조, 강위창*, 홍창기**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, 아산재단 서울중앙병원 의학통계 및 연구계획자문실*, 울산의대 내과학교실**			
	영문	Sang-II Lee, Young-Ho Khang, Moo-Song Lee, Hee-Jo Koo, Weechang Kang*, Changgi D. Hong**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, University of Ulsan Consulting Unit for Biostatistics and Research Planning, Asan Medical Center*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College of Medicine, University of Ulsan**			
분 야	보건관리 (○)	발 표 자	일반회원 (○)	발표 형식	구 연 (○)
	역 학 ()		전 공 의 ()		포스터 ()
환 경 ()					
진행 상황	연구완료(○), 연구중() → 완료 예정 시기 : 년 월				

1. 연구 목적

이 연구는 우리 나라 국민들의 전반적인 보완요법 이용률과 이용양상, 보완요법 이용에 따른 의료비 지출 규모를 파악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.

2. 연구 방법

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를 모집단으로 하여 비례할당 및 계통적 추출법 (proportionate quota and systematic sampling)에 따라 2,042명의 표본을 선정하여, 1999년 5월 25일부터 5월 29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.

통계청의 <1995 인구주택 총조사보고서> 자료를 기초로 16개 광역 시/도별로 최신편화번호부를 이용하여, 광역 시/도별로 성, 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라 표본수를 할당하였다. 총 16,587개의 편화번호 표본 중, 44.5%는 전화통화가 이뤄지지 않았으며, 10.0%는 편화번호 기재가 잘못된 편화번호였고, 6.3%는 가정집 편화번호가 아니었다. 조사가정에 18세 미만의 연령을 가진 대상자만 있는 경우가 4.5%, 비례할당 기준에 맞는 응답자가 해당 편화번호의 가구 내에 없는 경우가 9.5%로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. 외국인이거나 인지기능 장애로 전화면접이 불가능한 경우는 0.2%, 전화응답을 거절한 경우는 11.0%, 전화설문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는 1.8%로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.

총 47명의 조사원을 선발하여 조사의 특징, 질문내용, 응답가구 및 응답자 선정방법 등에 대해 2시간의 교육을 실시하였고, 질문지의 이해를 위해 조사원 2인이 짝을 지어 전화면접원과 응답자의 역할을 서로 바꿔해 보는 역할극을 실시하였으며, 본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각 조사원이 2부의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방법을 숙달하도록 하였다.

3. 연구 결과

성, 연령, 지역, 교육수준, 종교 변수를 기준으로 통계청이 1995년에 실시한 <인구주택 총조사> 결과와 이 연구의 대상집단을 비교해볼 때, 우리 나라의 전체 인구사회학적 구조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전체 조사대상 중 29.0%가 지난 12개월 동안 한 가지 이상의 보완요법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남성보다는 여성, 연령이 증가할수록, 종교를 갖고 있는 군, 건강상태가 나쁠수록, TV/신문의 건강관련 기사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수록 보완요법을 더 이용하고 있었다.

지난 1년간 건강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(N=1,609) 중 약 60%만이 병·의원이나 보완요법을 이용하였고, 이들 중 31.4%는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병·의원을 이용하지 않고 보완요법만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.

건강문제별로는 산부인과 61.9%, 근골격계 53.9%, 내분비계 증상 및 질환을 가진 사람 중 58.9%에서 보완요법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.

보완요법을 이용한 사람(N=593)이 이용한 보완요법 종류는 231개로 매우 다양한 보완요법을 사용하고 있었으며, 근골격계질환에서는 침술과 한약, 호흡기계질환에서는 약초요법과 식이요법, 위장관계 질환에서는 한약과 식이요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.

병·의원/약국과 보완요법을 모두를 이용한 사람의 만족도 점수를 비교한 결과, 보완요법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높은 경우가 더 많았다. 보완요법을 이용한 사람들의 46.6%는 자신이 이용한 보완요법을 다른 사람에게 권유할 의향이 있었고, 특정 건강문제에 대해 병·의원과 보완요법을 같이 이용한 사람 중 59.4%가 보완요법 이용여부를 의사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.

지난 1년간 18세 이상 국민이 지출한 보완요법 지출은 총 2조2천6백원인 것으로 추계되었는데, 이는 병·의원, 약국 등의 의료기관 이용에 사용한 지출의 40.8%에 이르는 것이다. 또한 병·의원/약국과 보완요법 모두를 이용한 사람 중에서 1/3 정도는 보완요법 이용에 보다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4. 고찰

우리 나라 18세 이상 성인의 30% 정도는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보완요법을 1년에 한 번 이상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, 이에 따라 보완요법에 지출하는 비용 규모도 1년에 2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. 병·의원/약국과 보완요법 모두 이용한 사람의 1/3 정도는 오히려 보완요법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, 적정 의료이용 수준과 적정 국민의료비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의 보완요법 이용과 비용지출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이 요구된다.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병·의원이나 보완요법을 이용한 사람 중 1/3 가까이 병·의원을 이용하지 않고 보완요법만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고, 보완요법을 이용한 경우 46.6%에서 다른 사람에게 보완요법을 권유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완요법이 비전문가적 의뢰체계를 통해 확산될 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 있다. 특히 보완요법 이용 사실을 의사에게 밝히지 않는 경우가 60% 가까이 되고 있어, 진료과정에서 의사들이 보완요법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환자에게 문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.